# "국가산단 원스톱 입주지원, 뿌리산업에 섬유염색 추가를"

**산업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기중앙회, 건의사항 33건 전달**
**"노후 뿌리기업에 ESG시설 지원**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 개선해야"**

중소기업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이창양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중소기업계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공장설립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원스톱 지원제도 마련, 뿌리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현장건의 13건을 포함해 총 33건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레미콘, 금형, 비금속광물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 만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옥죄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최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에 대해선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국가산단에 입주하기 위해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등록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신속한 입주와 공장 설립을 위해 산단공에 '원스톱 지원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또 섬유염색산업을 '뿌리산업'에 추가하고 뿌리기업에 우선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건의했다.

섬유염색업의 경우 섬유제조업에 기반하고 연계성도 높은 중요한 산업이지만 정부지원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업력이 오래돼 노후화된 뿌리기업들에 대해 중소기업 ESG 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현실성 있는 ESG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에 대한 개선요청 ▲전선산업 공동개발 연구개발(R&D)·교육센터 설립 지원 ▲광업기업 업무용중장비 면세유 적용 ▲풀필먼트 구축사업 참여물류센터 확대 ▲석회 소성업계 탄소중립 R&D 지원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20건의 서면건의에선 ▲뿌리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 ▲코트라(KOTRA)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개선 ▲LPG사용자 맞춤형 에너지복지 법제화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산업부로 이관 ▲조선해양기자재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지원 ▲친환경기자재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자유프로그램 신설 ▲LP가스 판매시설 공인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뿌리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의 경우 6월과 11월 봄·가을 요금적용, 토요일 경부하 요금적용, 전력산업기금(3.7%) 면제와 함께 기후환경요금 상·하한 설정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정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中企,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개발 나서

**중기부 '생활실험실 R&D 플랫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문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생활실험실(리빙랩) R&D(연구개발) 플랫폼'을 가동한다.

중기부는 7일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제품을 기획·개발하는 '생활실험실(리빙랩) R&D 플랫폼'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구축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중소기업의 기획·개발·실증 전 단계에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업부는 올해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지난 2월 운영기관으로 울산테크노파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또 이번에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접점 역할을 하는 생활실험실(리빙랩) 플랫폼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구축해 협업, 제품체험, 소비자 참여, 시제품 제작, 실증, 네트워킹,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울산·부산·광주·대전·전남·경기 지역 총 14개 기업이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참여 중소기업으로 지난달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2년간 최대 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는다. 개별 과제별로 교수, 선배 기업, 창업지원 전문가 등이 프로그램매니저(PM)로 지정돼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 윤석배 기술개발과장은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소비자 취향에 부응하는 제품개발"이라면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그것을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임직원들이 '폐기물 매립 제로(ZWTL)' 골드 등급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매직

# SK매직, 폐기물 재활용률 96% 달성

**폐기물 매립 제로 '골드등급' 인증**

SK매직이 폐기물 재활용률 96%를 달성하며 '폐기물 매립 제로(ZWTL)' 골드 등급을 인증받았다.

SK매직은 응용·안전·과학분야 글로벌 리더 UL솔루션즈로부터 ZWTL 골드 등급을 인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ZWTL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100%) ▲골드(99~95%) ▲실버(94~90%)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SK실트론,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등 지금까지 국내 30여개 사업장이 인증을 받았다.

SK매직 생산시설이 위치한 화성공장은 회사가 급격한 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연간 1000t 이상의 폐기물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폐기물 매립 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 구성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방문 관리 서비스 진행 시 발생하는 정수기 폐필터와 포장 박스, 스티로폼 등의 회수폐기물을 비롯해 생산라인, 연구실, 실험실 폐기물,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까지 모든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률을 지표화해 관리한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美 법인, 물류시장 경쟁력 '인정'

**'퀘스트 포 퀄리티 어워드' 수상**

CJ대한통운 계열사인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가 연이은 수상으로 미국 물류시장 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미국 통합법인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CJ Logistics America)가 미국의 물류 매거진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Logistics Management)'에서 주관한 '2022 퀘스트 포 퀄리티 어워드(2022 Quest for Quality Award)'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9회를 맞은 퀘스트 포 퀄리티 어워드는 미국 정통 물류 매거진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에서 물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모범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는 복합운송 주선사 카테고리에 다른 8개 기업과 함께 선정됐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복합운송 주선사는 화주가 화물을 옮길 때 필요한 철도 및 트럭 등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주선하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복합운송 주선사 카테고리는 ▲정시성(On-Time Performance) ▲가치(Value)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장비&운영(Equipment & Operations) 등 5가지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는 5가지 기여도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평균 종합점수 42.02점보다 월등히 높은 63.12점을 받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복합운송 주선사 카테고리에 선정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점수 차로 1등을 차지하며 차별화된 물류 역량을 인정 받았다"며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물류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 청년창업가에 일일멘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일일 멘토로 나섰다.

중진공은 경기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동문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선 ▲7개 분과별 소모임 ▲동문기업 간 협업 기회를 발굴하는 비즈매칭 네트워킹 ▲회사·제품 홍보 부스 운영 등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엔 커피·식음료·펫 분야 사업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입교 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 이사장은 "선후배 기업들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지속되길 바란다. 중진공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 CEO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홈앤쇼핑, 중소 협력사에 110억 조기지급

홈앤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에 110억원 규모의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7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대기업을 제외한 1000여개 중소 협력사에게 110억원 이상 규모의 대금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7일로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 해당 기간의 예상 정산 대금을 사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조기 지급과 성격이 다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 중에는 자금 운영 등 이유로 하루 이틀이 아쉬운 회사들이 적지 않다"며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추석을 준비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